

지역 소식통

부안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 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부안군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23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년도부터 시행하여 약 1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장 9개소에 대해 방지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사업예산은 1억 50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중 대기 배출시설 4·5종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1~3종 사업장은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저녹스버너 설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며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해 3월 25일 ~ 4월 22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부안군청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개별 · 공동주택 가격 열람 · 의견접수

정읍시가 23일 2022년 정기분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열람하고 시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정읍시에 개별 · 공동 주택을 둔 소유자 등은 4월 12일까지 개별주택 25,467호와 공동 주택 21,627호에 대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은 정읍시청 세정과와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 세무민원 담당 창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열람은 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주택평가 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정읍시의 주택가격을 대표할 수 있는 1.578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평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축산악취 잡고 지역상생 '실현'

고창군, 행정 · 농가... 주민과 함께 노력 '상생축산 조성'

전북 고창군이 고질적인 축산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고창형 축산정책' 시행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고창군은 올해 '축산악취개선 상생협의회'를 운영해 위원화와 실무단으로 이원화 체계를 구축하고 역할을 분담해 효율성을 높인다.

실무단은 악취 불편 농가 어려움 등을 듣고 전문가 진단을 통한 악취개선계획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된다. 이번 상생협의회는 행정 · 농가 · 주민의 유기적인 악취개선체계를 갖춘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운영된 '지역협의회'는 축산분야 이해도 높이고 농장별 악취저감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의 고창형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축산악취 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 '환경오염 예방', '농가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한다. 5대 분야별로 ▲축산악취 개선사업(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 기계 · 장비 등) ▲축산환경 개선



지도지원 ▲미생물제형 공급 지원 ▲퇴액비유용 전문조직 지원 등 47억 5200만원이 투입된다.

특히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가축분뇨 악취저감 통합솔루션사업(총사업비 3억원)'의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악취물질은 없앨

수 있는 안개분무시설을 ICT와 연계시켜 각 농가에 지원하게 된다. 고창군청 이종태 축산과장은 "농가 악취저감에 혁신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사업도 계속된다. 앞서 83호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했고,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고창군은 농가가 추구하는 미래형 축산 방향에 맞춰 축산 ICT융복합 확산사업을 지원한다. ICT를 활용한 통합재어 기술로 농가 부담을 덜어내고 생산성을 높인다.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축산농가에 무인 자동화 장비는 가뭄에 대비와도 같은 반가운 존재가 될 전망이다. 2019~2021년 55개소에 108억63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0개소에 24억원이 투입된다.

농장 환경관리기 등 ICT 기술을 사용한 축산관리 장비를 지원한다. 사업 완료 이후에는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하여 축사 관리 방안,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도 함께 전한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가 시민 중심의 열린 민원 행정 구현을 목표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적극 행정마인드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원 공무원 대상 친절 교육

정읍시,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 '시민 감동 행정' 구현

정읍시가 시민 중심의 열린 민원 행정 구현을 목표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적극 행정마인드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가운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의지다.

관련해 시는 3월부터 5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 응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 현장 코칭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기존의 강의식 교육방식에서 탈피해 전문 강사가 직원의 민원 응대 태도와 말투 등을 직접 현장 모니터링을 한 후 민원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 논하고, 다양한 친절 · 불친절 사례를 공유한다.

또, 민원인과의 소통 · 공감 방법, 전화민원 응대 요령, 불만 민원 응대 방

법 등 민원인과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요령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시설물 배치와 주변 환경 등의 점검을 통해 민원인이 청사에 방문했을 때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코칭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자신의 민원 응대 방식을 잘 파악해 한층 더 친절할 모습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QR코드를 통한 상시 민원인 친절 만족도 조사와 민원 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분기별 친절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하는 등 고품격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코로나19 신속항원 자가검사키트 · 마스크지급

고창군, 임산부 · 태아 감염예방 위해 우선 지원

고창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임산부 · 태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 자가검사키트와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면역수준이 낮고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임산부와 태아를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지원해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임산부 1인당 5주간 주-2회 사용가

능한 10개의 신속항원 자가검사키트와 마스크를 지급받게 되며, 수령을 원하는 임산부는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직접 방문시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등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과 함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 감염에 취약한 임산부를 우선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신속항원 자가검사키트와 마스크를 지원하게 됐다"며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서는 비닐봉투에 밀봉한 자가검사키트를 가지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검사를 받으면 된다"며 임산부의 안전과 건강한 출산이 되길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고창군보건소 모자보건실(560-8782)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취약계층 아동지원 '글방' 사업 선정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자체로서 세계적인 소셜벤처인 '에누마코리아'와 협력하여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지원사업인 '글방' 사업에 23일 선정되었다.

사업 '글방'은 비대면 교육지원사업으로써 한글학습 등이 부족하여 학령 초기 학습격차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소셜벤처가 제

공하는 학습컨텐츠를 전용 태블릿으로 소화하여 보호자 도움없이 비대면 방식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소셜벤처 에누마코리아와 2020년부터 협력하여 글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안군은 회원 지자체로서 사업에 동참하여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한 부안군 관내의 30명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한 가구당 연간 150만원의 혜택이 지원될 예정으로 전체 사업비는 45백만원이다.

한편 지난 2020년 9월부터 에누마 글방 사업에 참여한 회원지자체는 현재 서울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은평구, 경기도안산시, 화성시 등 약 13여개의 지자체가 참여 중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 박차 가해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옥)가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強小農)'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경영개선 의지가 높은 중소규모의 가족농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22일 제2청사에서 청년창업농과 귀농인 신규농업인 등 30명의 신규 강소농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기본교육(3월), 심화교육(4월), 후속교육(5~6월), 현장견학(9월), 강소농대전참가(10월), 강소농 평가회(11월) 순서로 진행된다.

교육은 농업경영의 이해와 경영표준

진단, 중장기계획수립, 선도 농가 현장 교육 등 강소 농가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교육 수료 이후에는 강소농 자율 모임을 구성하고 회원들 간의 정보 교환과 공동마케팅 활동을 추진한다.

신규 농가가 강소농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 6시간과 심화 교육 14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이후 총 24시간의 후속 과정 교육을 마쳐야 한다.

강소농 교육을 수료한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과 강소농 자율모임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